

◀하나님 나의 하나님▶

어린이들의 해맑은 기도들

하나님, 내가 무얼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?
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.
- 수 -

하나님,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가 한 사람씩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. 그걸 생각해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셨나요?
- 미셀 -

하나님,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.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려고,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려고.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? 하나님, 화이팅!
- 로버트 -

하나님, 돈이 많은 분이세요? 아니면 그냥 유명하기만 하신 건가요?
- 스티븐 -

하나님, 오른쪽 빵을 맞으면 왼쪽 빵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.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
- 사랑을 담아서 데레사 -

하나님, 왜 한 번도 텔레비전에 안 나오세요?
- 킴 -

하나님,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를 지르며 싸움만 해요.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.
- 난 -

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을 기억하세요?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.
- 가이 -

하나님, 기도하지 않을 때도 가끔씩 하나님을 생각해요. - 엘리어트-

사랑하는 하나님, 왜 새로운 동물을 만들지 않으세요? 지금 있는 동물들은 너무 오래된 것 뿐이에요
- 조니 -

하나님, 요나와 고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처음이에요. 그런데 우리 아빠는 이 이야기가 뻥이래요 정말 못말리는 아빠예요. - 시드니 -

하나님,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예요
- 죠이스 -

만일 하나님이 공룡을 멸종시키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. 하나님! 정말 잘 하셨습니다 - 조나단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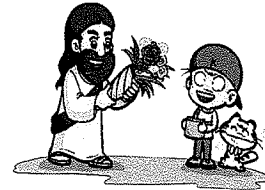
하나님, 사람을 죽게 하고 또 사람을 만드는 대신, 지금 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건 어떨까요?
- 제인 -

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	'2004년 교회생활'비보 같은 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섬김과 봉사 *익명성 -명예
제6권 18호	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	2004년 5월 2일
☎520-9464, 369-5077, 71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Holy Sepulchre) calvary.byus.net		

- 어린이 주일 -

아들에게

-문정희-



아들아
너와 나 사이에는
신이 한 분 살고 계시나보다

왜 나는 너를 부를 때마다
이토록 간절해지는 것이며
네 뒷모습에 대고
언제나 기도를 하는 것일까?

네가 어렸을 땐
우리 사이에 다만
아주 조그맣고 어리신 신이 계셔서
사랑 한 알에도
우주가 녹아들곤 했는데
이제 쳐다보기만 해도
훌쩍 큰 키의 젊은 사랑아

너와 나 사이에는
무슨 신이 한 분 살고 계셔서
이렇게 긴 강물이 끝도 없이 흐를까?

◀남편 기 살리는 말▶
“당신은 아무렇게나 입어도 어울려요”
◀기 죽이는 말(절대 해선 안될 말)▶
“키위는 벅타이가 돌아가도 멋 있던데”

◀아내 기 살리는 말▶
“당신은 갈수록 더 멋있어져”
◀기 죽이는 말(절대 해선 안될 말)▶
“왜 이렇게 촌스러워”

◀그땐 그랬지▶ 중년이 된 말괄량이 삐삐
♪ 삐삐를 부르는 환한 목소리♪
♪ 삐삐를 부르는 상냥한 소리♪ ~~~~
흑백 TV의 70년대는 양갈래 머리, 긴 스타킹, 죽은개 가득한 얼굴의 장난꾸러기 삐삐에게 모든 어린이들이 매료되었습니다. 약자를 괴롭히는 자를 혼내주려 동네를 좌충우돌하며 다니던 삐삐는 권위주의 시대에 비치던 한가닥 대리만족이었습니다. 이제 45세 중년 여인이 된 삐삐 그녀, 남아있는 그 때의 시원스런 큰 입과 선한 눈꼬리는 우리를 위한 추억의 뒷인 것 같아 고맙기만 합니다



주 일 예 배

(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영 광 송 Gloria	Calvary	다 같 이
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		
용서의 선언 Proclaim	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	인 도 자
*찬 송 Hymn	14장	다 같 이
*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	71 (어린이주일)	
*신 앙 고 백 Apostle's Creed	사 도 신 경	
교 회 소 식 Welcome & Announcements		
어 린 이 시 간 Sunday School		주 일 학 교
찬 송 Hymn	305장	다 같 이
기 도 Prayer		정 덕 수 장 로
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	마태 18:1-14	인 도 자
성 가 대 찬 양 Choir		나 무 십 자 가 성 가 대
설 교 Sermon	순진한 신앙, 바보같은 신앙	김 성 국 목 사
찬 송 Hymn	376장	
헌 금 기 도 Offering Pray		인 도 자
응 답 송 Response Song	'이 믿음 더욱 굳세라' (1월다같이)	다 같 이
축 도 Benediction		김 성 국 목 사

(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)
◆ 5월의 예배위원 ◆

일자	기 도	헌금위원	설 것이
2	정덕수	변민강	11구역
9	정희자	신미숙	1구역
16	장현중	신영화	청년부
23	지찬영	양경배	2구역
30	최재학	유병민	3구역

' 2004년 교회표어
"바보같은 교회" (창6:22)
*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. 그래도 살아본다
*누구나 평등하다.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

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
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
*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
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

주일예배: 낮 12시 | 수요일예배: 저녁 7:30 | 아동, 학생부: 주일 낮 12시 | 청년부: 토 저녁 6시

- 교우소식
<한국 방문 후 귀국>
*김경숙 집사, 효은, 송은, 해석
*박하림 집사, 민규, 민이, 시아버님 장례 마치고 귀국.
- 오늘은 "어린이주일"입니다. 다음주일은 '어머니주일'로 지키겠습니다
- 이번주간은 금요구역예배주간
*구역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과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
- "교육관건축헌금"
*지난주간에도 Hall을 축양하는 Archichet의 모습에 가슴이 뛰었습니다.
교육관(Hall)건축과 교회 오르간 수리를 위한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.
건축 헌금은 1차로 5월까지 드립니다
- 우리교회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< calvary.byus.net >
- 이번 주중에(8일) 고국에서는 "어버이날"이 있습니다.
*고국에 있을 때는 카아네이션 한 송이가 그리 큰 사랑인 줄 몰랐는데 쉬 찾아뵙기
어려운 곳에 있어보니 꽃 한 송이가 마음 전부임을 알겠습니다
- 결식자 급식봉사. 10일(토) 오전10시- 오후1:30 . 결식자 봉사위원.
- 오랫만에 보는 2002 월드컵축구 하이라이트(한국)
*오늘 Tea Time 시간에 2년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
- 새벽기도회 <매주 금요일 6:00am>
*가족 위해 맘 흘려 수고해도 아직 다 해 주지 못한 짐 하나 있는 듯 할 때 옆드
리는 하나님 앞의 새벽, 비로서 가장 귀한 생명의 수고를 다 한 기쁨이 있습니다.

◀착한 시인들▶ 바다가 보이는 교실
-정일근-

참 맑아라.

겨우 제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
열이, 열이가 착하게 닦아 놓은
유리창 한 장

먼 해안선과 다정한 형제 섬
그냥 그대로 눈이 시린
가을바다 한 장

열이의 착한 마음으로 그려 놓은
아아, 참으로 맑은 세상 저기 있으니.

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지울
수 없는 과거가 있습니다. 그것은
어린시절입니다. 그 시절이 있기에
지금 힘들거나 어려움에 막히면 원
점으로 돌아가 다시 새롭게 시작 하
고픔이 있습니다.

어린시절은 그만큼 누구에게나 새
로움과 순결함을 일깨워 주는 마음
의 호수입니다.

어린이가 닦아놓은 유리창으로 보이
는 바다처럼 우리가 손 대고 보는
것들을 어떻게 해야 맑게 보여지게
할 수 있을런지요?